



SCU 소식지



사단법인
아프리카대륙비전
Africa Continent Mission-Korea

제14호 발행일 4월 15일

서울시 종로구 연지동 136-46 한국기독교회관 607A (우)110-736 전화 | 1688-5480 팩스 | (02)6008-0769 이메일 | scu2010@gmail.com 홈페이지 | www.africavision.or.kr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안에서 살기 원하십니다. 지금 여호와 안에서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 안에서 살면 모든 일을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산다는 것,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선교가 아닐까요?

제가 생각할 때 그래요. 선교할 때에 하나님의 응답이 속히 이루어집니다. 선교를 위해 기도회에 오신 여러분들은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목회를 잘 할 줄 모릅니다. 특별한 재능도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선교만큼은 강제로 시키셨어요. 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강제로 하지 않으면 안되게 하더라니까요?

처음 개척을 하니까 제가 다녔던 교회에서 월2만원씩 보조를 해 주었습니다.

6개월 하더니 아무 소리 없이 끊어버리더라 구요. 아~하나님이 나보고 하라는 가보다 그래서 내가 거꾸로 2만원씩 선교현금으로 보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어요.

한번은 아들이 캐나다에 어학연수를 가려고 비자 준비할 때 '아빠 연수를 갈려면 돈이 2천 만원 적립이 되어야 한 대요' 그런데 목사가 적립된 돈이 있을 리가 없지요. "아빠 돈 없다"고 했더니 친구들 3명이 같이 가는데--- 툭툭거리며 자기만 없다고 하였습니다. "여행비자로 가거라"

'여행비자로 가면 2~3개월밖에--- 1년은 있어야 하는데요!' "기도할 테니까 그냥 가!!!!" 하면서도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렇게 출국날짜가 다가왔습니다.

출국하는 아침인데 사모가 '여보 은행가서 돈 좀 찾아오세요? 뭐 돈??' 100만원만 찾아오라는 것입니다. 은행에! 조화를 해보니 100만원이 들어있는 거예요. 참 반갑더라고요. 그날이 월요일인데 어제 주일날 선교지에 보낼 돈이 없어서 못 보냈거든요. "아~ 이거 선교비로 보내면 좋겠구나."

그리고는 곧바로 100만원을 선교지에 이체시키고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왔더니 사모가 '여보 돈 찾은 것 주세요?' 하는 거예요. "어! 돈?" "아니! 여보! 당신 아들 어학연수 보내면서 돈 하나도 안줬지 않아요?" 라고는 "당신이 돈을 한 푼도 안줘서 모 집사님한테 100만원 꾸달라고 했더니 보내준 것 이에요." 빨리 주세요?

"그게 그 돈이라고! 내가 지금 선교비로 보내 버렸는데!" 그랬더니, 사모가 털썩 주저앉으면서 울어버리는 거예요. 만일 그 돈이 아들에게 줄 돈 인줄 알았으면 선교비로 안 보냈겠지요.

하지만 오직 선교만을 생각하는 저에게는 웬 떡이나~ 하고 보내버렸던 것입니다.

발만 동동거리고 있는데 모 집사님 한분이 오시더니 "사모님 왜 그러세요?" -- 전후 사정 이야기를 했더니 "잠시만 기다리세요."라고 하더니 현금서비스 200만원을 받아 주셨습니다.

아들은 비자 없이 캐나다 가기 때문에 불



사단법인 아프리카대륙비전 이사장 이영근 목사

안하고 초조한 마음으로 캐나다 출입국 심사대 앞에 섰는데 관광비자 3개월이 아닌 6개월을 내주더랍니다. 이유는 모르지만 너무너무 기뻐서 감사했다면서 전화를 했더라고요. 체류기간 6개월 받은 사람은 1번 연장이 가능하니까 그렇게 1년을 채울 수 있었습니다. 그 날 이후 개척교회 새 신자 한 분이 오더니 매달 100만원씩 저희에게 보내주었습니다.

부모가 되어서 자식 공부시킬 돈이라고 알았으면 선교비로 보냈겠어요?

그냥 돈이 생긴 줄 알고 보낸 것이지요. 하나님은 이런 식이셨어요. 목회하면서 이렇게 강제로 선교를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선교 후에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져 이곤 했습니다. 신기하게도 기도하는 제목마다 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내가 예쁜 것 하고, 잘 해서 응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선교하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작년에 또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9년전 우리 교회가 은행 빚 때문에 경매될 상황에 처했었습니다. 그래서 은행 대출금을 담임목사인 개인 명의에서 교회법인 명의로 변경시켜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 저와 두 분의 장로님, 권사님 한 분이 연대보증을 서야 했습니다. 그 당시 경매는 해결되었지만 선교비 내느라 이자를 처리하지 못 하였습니다. 그러는 9년 동안 연체이자가 17억 5천만 원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결국 그 채무로 말미암아 연대보증인들에게는 신용불량이라는 오명을 안고 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는 매분기마다 압류하겠다는 협박성 편지를 받으며 살았습니다. 목사인 나는 믿음으로 견딜 수 있다고 하지만 장로님, 권사님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어느 날 장로님 한 분이 "목사님, 저 신용 좀 풀어주시면 안돼요?" 하시는 거예요.

목사인 나는 아무 말도 못하고 마음의 부담만 안고 사는데 어떤 분이 개 인파산을 하면 된다고 해서 법원에 갔더니 교회현황을 보고는 이정도 교회면 17억 5천만 원 정도는 얼마든지 갚을 수 있으니 파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당신들이 목사를 고발하면 신용불량을 풀어주겠다"는 것입니다. 장로님들이 담임목사를 고발할 수 없었는지 끔끔 앓기만 하고 있다고----

당사자인 저는 민망하고 죄송해서 장로님들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기도만 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작년 1월 두 분 장로님을 불러서 금년에는 신용불량의 족쇄를 풀자고 하면서 채권단에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3억을 내야 풀어준다는 것입니다. 신용불량만 해제해 주면 교회에서 1억을 대출받아 채권단에 주고 매달 100만원씩 10년간 전체 2억2천만 원을 주겠다고 제시하였는데도 3억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1억이라도 빚을 갚으려 했는데 그것도 부분적으로는 갚을 수 없다고 하여 교회통장에 넣어 놓았습니다. 하지만 그 돈이 보관되어 있겠어요? 가지고 있다가 선교비로 달라고 하면 주다가 보니 1억 원이 2



개월도 안되어 없어져 버리더군요.

다 쓰고 보니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1억 대출 받은 것 어디 있습니까?”라고 하면 선교비로 다 사용했다고 하면 문제가 될 것 같더라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1억 다 썼는데 신용불량을 풀어 주세요?”라고 한참을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더 좋은 방법으로 해결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 이 말씀이 뭐지?” 그러면서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면 하시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까요? 안주실까요?

그 말씀을 들려주신 몇 개월 후 10월 말경인데 채권단 은행의 최고결재권자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5천만 원만 가지고 오시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전에는 2억 2천을 준다고 해도 3억 아니면 안 된다는 분이----- 이거 사기 아니냐? 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지만 내가 가는 것보다 공무원이신 모 집사님에게 사정이야기를 하고 보냈는데 5천만 원으로 17억 5천만 원의 이자를 없애주겠다는 것이 진짜라고 했습니다. 이 집사님은 한술 더 떠서 “이사님! 우리 목사님 돈 없을걸요. 5천만 원은 어렵고 2,500만 원 정도라면 준비 할 수 있을 걸요?” 하고는 결론도 안 들고 와버린 것입니다. 저는 5천이면 좋은 기회인데 괜히 퉁기다가 안 되면 어찌지? 또 걱정되더라고요. 어쨌든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다렸더니 그 이사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염치가 있어야지요? 17억5천만 원을 5천만 원에 해결해 준다면 감사하고 빨리 가지고 와야지 집사 시켜서 2,500만원이 됩니까?’ 하면서 3,500만원만은 가지고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말 않고 3,500만원을 입금하였고 17억5천만 원의 빛이 깨끗이 처리되었답니다.

선교하시는 여러분! 누가 하셨어요? 은행의 최고결재권자가 했어요? 심지어는 은행 직원들도 이런 경우 말이 안 된다고 하면서도 최고결재권자가 했기 때문에 누가 항변이나 할 수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왜 못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필요에 따라 강제로라도 선교하도록 하시고는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자진해서 선교현금을 내시니 하나님께서는 더 기뻐 받을 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제목들마다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한번은 교회에 2천만 원이 12월31일에 필요했던 적이 있습니다.

정말 절실했었습니다만 교회가 경매 중이었으니 누구한테 돈 이야기 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경매된다는 내용이 인터넷에 올라와 있으니 모두가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2천만 원이 필요한데--없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데--하나님 어떻게하죠?”라고 자꾸 기도했더니 우리 교단의 어떤 교회 목사님이 자꾸 생각났습니다. “하나님 이게 뭐예요?”--

그 목사님한테 꾸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저는“안됩니다.”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신협에 가서 돈을 빌리는데 네가 가면 안 되지만 그 목사님이 가면 된다’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다 말고 일어나서 그 목사님한테 가서 사정이야기를 하면서 2천만 원이 지금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 목사님이 저를 한참 쳐다보시더니 ‘교회 장로님들이 자기를 위해서 신협에 연금을 들어 놓았으니 연금을 담보로 대출받으면 된다’며 나가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필요한 2천만 만원이 해결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자를 한 푼도 못주었습니다.

1년 후에 많은 비로 인하여 교회가 수해를 당해 또 어려움이 처해 있을 때 그 목사님이 오셨는데 “이 목사! 2천만 원 없던 일로 해!”하시는 겁니다. 너무나 죄송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2년이 또 지나갔습니다. 우리 교회 B집사님이 특별현금을 하셨는데 지출할 곳을 점검해보니 2천만 원이 남는 겁니다. 어디에 쓸까? 하고 있



는데 2년 전 그 목사님이 생각이 나서 곧 사모와 함께 2천만 원을 들고 그 목사님께 찾아갔지요. 사택에 갔더니 그 목사님 사모가 ‘아들이 유학 갔는데 교회재정이 없어 필요한 돈을 못 보내 준다’며 ‘2천만 원이 필요하다’고 울먹이면서 말하는 겁니다.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사모님, 여기 2천만 원 여기 있습니다” ‘이 목사! 그 돈은 그냥 내가 준거야~!’ “목사님 저도 그냥 드리는 겁니다”그 사모님이 그 돈을 받고는 영영 우시는데 저의 부부도 눈시울이 촉촉해졌습니다. 이자는 떼먹었지만 내 돈 준 것처럼 얼마나 기뻐는지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좋은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좋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십니다.

선교에 참여하면서 기도제목을 놓고 기도했는데 응답받지 못했다면 한 가지 이유입니다.

기다리지 않고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고 기도하고 기다리면 하나님은 100% 응답하십니다.

3천5백가지고도 17억5천을 해결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믿고 기다리세요. 100% 응답하십니다.

이러한 사건들이 목회하는 동안 수없이 많았어요. 목회할 줄 몰라도 신이 납니다.

얼마나 목회가 재미있는지 몰라요. 여러분도 기도하고 믿고 기다리면 응답받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내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리라.

그분 안에 살면 모든 것이 자유롭고, 기쁘고, 평안합니다. 그 옛날 에덴동산의 축복이 선교하며 신앙으로 사는 여러분 현장에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어디서든지 에덴의 축복은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피로 모든 것이 해결되었습니다.

이답과 하와의 잘못으로 에덴동산에서 쫓겨나 다시는 못가는 것 같지만 독생자 예수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십자가에 달리게 함으로써 회복시켰습니다.

그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 안에서 살면 모든 응답과 감사로 살 수 있습니다. 이제까지 염려와 걱정으로 살아오셨더라도 오늘부터 감사하면서 출발하십시오.

아프리카대륙비전의 SCU 개미군단으로 가입하신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가입하셨는지 모르지만, 가입하신 이상 여러분은 축복의 현장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프리카대륙비전 후원자 여러분!

반듯이 때가 되면 이루어줍니다. 내 맘대로 오늘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내일이 좋다고 생각하시면 내일 응답이 된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응답하는 것은 그 분만의 주권입니다.

기도는 내가 하지만 이루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내가 기도한 것은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내 마음에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이러한 축복을 누리며 사는 아프리카대륙비전 후원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선교동역자님께

주님의 기쁨과 평안이 아프리카 주민선교를 기도와 물질로 동참하시는 선교 동역자 가정과 섬기시는 교회 위에 있으시기를 빌면서 선교보고를 드립니다.

중남 아프리카는 현재 여름철이 지나고 겨울철로 접어들었습니다. 아프리카 원주민 선교를 위하여 오랫동안 기도와 물질로 헌신하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모잠비크, 남아공화국, 스와질란드 교회 건축사역 >>



모잠비크 사이사이 Xai Xai 교회

홍순안 목사님이 섬기는 참빛교회 장로님의 후원으로 스와질란드의 Madonsa 참빛교회와 Ntontotzi 참빛교회의 건물이 완공되어 5월5일과 6일에 헌당예배를 드릴예정이며, 남아공화국의 Nelspritz지역에 빛으로교회(한상용 목사님)의 후원으로 공사가 거의 완공 단계에 있습니다. 남아공화국의 Mayflower 지역에 노가대 선교회와 김순석 장로님께서 교회 부지를 구입 해놓고 건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목사님이 섬기시는 예본교회의 후원으로 건축 중인 Xaxai 예본교회가 완공되어 페인트칠을 준비 하던 중 태풍을 만나 함석지붕이 날라 갔다는 연락을 받고 지난주 목요일 (3월16일) Xaxai 교회를 다녀왔습니다. 교회당 옆에 현지인 담임목사님의 사택도 지붕이 날라 가고 주변의 나무들도 태풍으로 넘어져 있어서 안타까웠습니다.

- 이혜준 형제(전 영어 연수생)의 가족들의 헌금으로 Macia 지방에 건축 중인 교회(예본 교회에서 50Km 떨어진 곳)를 건축하던 중 이번 태풍으로 물에 잠겨 공사를 중단시켰다가 지방정부의 배려로 교회건축 부지를 받아 새로 공사를 시작 하였습니다. 이영옥 선교사님 내외가 섬기는 태안 순복음교회의 후원으로 모잠비크 Milange 지방에 건축 중인 태안 순복음지교회는 말라위 국경선에 위치해 있는데, 비행기로 2시간 거리여서 교회 건축이 완공 되었다는 소식을 받았으나 사진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거리가 너무 멀어서 건축을 담당 한 James 목사님에게 사진촬영을 부탁하였습니다.
- 권오성 목사님이 섬기는 인천 큰빛교회 손가연 집사님과 의성민음의집 후원으로 모잠비크 Maulane 지방에 지교회가 건축 중이며, 안봉웅 목사님이 섬기는 의정부 신광교회의 후원으로 모잠비크의 Macsava에 신광 지교회가 건축 중에 있습니다. 신광 지교회는 2년 전 교회건축비를 보내 왔었는데, 스와질란드의 Lobamba에 교회 건축 중 스와질란드 왕

이 소유한 부지라고 교회 건축 중단을 시켜서 그동안 기다리다가 안목사님의 허락을 받아 모잠비크 교회 건물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 김금호 목사님께서 섬기는 안디옥교회 후원으로 모잠비크 선교농장 안에 안디옥 목회자 훈련원 건축을 시작하였습니다. 이 훈련원을 마푸토 주에서 사역하는 현지인 목회자들의 영성훈련과 창대중학교의 기숙사로 사용하게 됩니다. 기숙사 건축비를 마석 기독교병원장 이신 이응진원장님께서 보내 주셨습니다.
- 1985년부터 25년 동안 중앙아프리카 말라위에서 150여 교회를 개척하여 섬기는 가운데 말라위 총회장으로 있는 Yasulu 목사님에게 2010년부터 2011년까지 새로 개척한 교회 현황을 알려 달라고 했더니 10개의 교회를 개척했다 하나 몇 년 전의 전체 교회숫자와 비슷했습니다. 새로 교회를 개척하면 전체 교회숫자가 늘어나야 하는데 비슷한 이유를 물어보니 매년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는데 교회 건물이 없어서 예배를 집에서 드리거나, 나무 밑에서 예배드리는 교회들의 없어지는 수와 새로 개척하는 교회 수가 비슷하기 때문"이라고 답변을 해서 교회건축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이 교회 건축을 꾸준히 지원해오고 있는 모잠비크는 254개 교회에서 291개 교회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7개 교회가 개척되어 교회수가 확대됨을 볼 수 있어 교회 건축이 지속적으로 진행 되어야 함을 실감했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인도하시면 계속해서 교회가 없는 아프리카 외진 곳에 건축사역을 꾸준히 진행시킬 것입니다.

임마누엘 신학교 사역보고 >>



남아공 임마누엘신학교 학생 및 교직원들



임마누엘 신학대학 2012년도 신입생들

모잠비크 학생들은 매년 여권, 비자 그리고 교통비 등의 문제로 학기 중에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올해도 다섯 명의 신입생들이 비자문제로 두 달이나 입학이 늦어져 다음 주에 오기로 되어 있고, 방학기간 동안 집으로 돌아간 모잠비크 학생들이 개강일이 훨씬 지나서야 학교에 돌아오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신입생뿐만이 아니라 재학생들에게도 이런 상황을 피하기 위하여 조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2012년 연초부터 민찬기 장로님께서 부학장님 직책을 맡아 보시면서 강의뿐만 아니라 농장일도 맡아 주고 계십니다. 학장이신 김익진 목사님께서 독일에서 사역을 하시는 관계로 학교업무가 효율적으로 진행되도록 민장로님을 부학장님으로 임명 하였습니다. 학교재정이 예년보다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매년 필요에 따라 여러 방법을 통해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학생들과 학교 스텝들 간에 기도의 영을 충만히 부어 주셔서 성령 충만한 학교가 될 수 있길 간절히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선교 비전 >>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는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우리들은 1985년부터 아프리카대륙 선교비전을 마음에 품고, 열심히 구령운동을 위하여 기도와 물질 그리고 몸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인 영혼구원을 위하여 신학생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훈련시켜 교회를 개척하고, 건축을 통하여 아프리카에 주님의 일들을 확대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동역자님들의 기도와 물질 헌신과, 이곳 선교사님들 그리고 현

지 동역자님들의 순종과 열심히 많은 선교의 열매를 맺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라고 확신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들의 아프리카 사역이 크게 성장 확대 되었습니다.

교회가 크게 성장하면 목회자가 대우를 받고 재정적으로 여유 있는 목회를 할 수 있으나 선교는 확대 할수록 여러 나라 선교지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끌어안고 몸부림치며 기도해야 되고 재정적인 필요가 더 많이 요구되기에 긴장해야 합니다.

일부 동역 자님들은 "아프리카 선교는 재정적으로 풍족하기 때문에 가난한 선교지로 선교비를 보내야 되고 아프리카 선교는 나의 비전이 아니다."라고 하시면서 지금까지 수년 동안 해오던 아프리카선교를 중단 시키는 사례가 있어서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아프리카뿐만 아니라 유럽, 아시아, 아메리카 모두가 우리들의 선교지이며 만민이 선교의 대상입니다. 선교는 불쌍한 선교사를 돕는 것이 아니고 개인적인 꿈이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하는 것도 아니며, 선교는 주님의 지상명령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아프리카 원주민 선교를 위하여 오랫동안 기도와 물질로 헌신하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늘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시길 멀리서 기도드립니다.

2012년 3월24일 아프리카 스와질란드에서
김종양선교사 드림.



1. 함께 사역하는 김재춘, 김순경, 민찬기, 김희상, 김동근, 송유진, 정은영, 이문균, 이민기, 현광섭, 조성호, 이윤정, Fritz, Williams, Coztzer, Ivan 선교사님들의 영육간의 간경함을
2. 중남부 아프리카 7개국에서 ACM대표회장으로 교회를 섬기는 말라위 Yasu, 모잠비크 James, 스와질란드 Mhinga, 케냐 Alex, 콩고 Ngowie, 잠비아 Barton, 남아공화국 Dlamini 목사님들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3. 임마누엘 신학교와 성실고아원의 원생등 100여명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교육시키며, 50여명의 현지인 목회자들에게 재정적 지원을 통하여 복음사역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재정적 어려움으로 선교사역이 중단되지 않도록
4. 스와질란드기독교대학(SCU)과 부설대학병원 건축이 형통하게 하셔서 아프리카복음화를 위한 교두보가 되게
5. 후원자 10,000명을 금년 내에 달성케 하옵소서.





SCU와 사단법인 소식

01 SCU 공동설립자 모집에 동참해 주세요!

SCU 공동설립자(후원자) 모집을 위한 114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대륙비전에서 하는 일과 SCU 프로젝트를 알리는 전도자로 공동설립자 여러분께서 되어 주십시오. 공동설립자 한(1)분마다 매월 한(1)분씩 4명을 회원으로 등록시키는 활동을 114운동이라 합니다. 우리 모두 "개미군단 10,000명"을 달성하여 SCU 프로젝트를 우리 손으로 완성시킵시다.

02 가정의학과 개설



남아공화국의 프레토리아 의과대학과 스와질란드기독교대학(SCU) 간에 의과대학의 공동학위 프로그램의 하나로 가정의학과 22명 정신의학과 35명의 학생이 입학되어 개강을 하였습니다.

이 과정을 정상적으로 수료하면 개업의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03 제 6차 Working Group 모임



2012년 1월 18일부터 SCU 6차 WG모임이 남아공화국의 세계병원선교회에서 있었습니다. 6차에서는 의과대, 간호대 IT공대, 교육대, 예술대, 약학대, 신학대 등 7개단과대로 구성하여 SCU가 단과대가 아닌 종합대학으로 설립할 것을 결의 하였습니다.

SCU 행정동 공사는 골조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04 SCU 대학본부(행정동) 공사 현황



공사명	4월	5월	6월	비고
철골, 슬라브 콘크리트 공사	[Progress bar]			
블록 공사		[Progress bar]		
미장 공사		[Progress bar]		
외장 판넬 공사			[Progress bar]	
도장 공사			[Progress bar]	
창호 공사			[Progress bar]	
방수 공사		[Progress bar]	[Progress bar]	
타일 공사			[Progress bar]	
천정 공사			[Progress bar]	
디렉스타일 공사			[Progress bar]	
수장 공사			[Progress bar]	
전기 공사		[Progress bar]		
설비 공사	[Progress bar]	[Progress bar]		
준공	2012년 6월 30일 준공 예정			

아프리카 특수성과 공사대금 부족으로 많은 일정이 지연되었습니다만 공사감독으로 김용운 장로님께서 새로 임명이 되셨고 헌신하시기로 하였습니다. 이를 계기로 새롭게 건축일정을 계획하였습니다.

공사일정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에서 구입해야 할 건축자재(창호와 외장재 등)를 4월 중에는 아프리카로 보내야 6월말에 행정동이 완공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05 홍보대사 위촉



CTS특파원 한인섭 CTS앵커 최슬기 가수 박강성 GIS대표 이상란



비올리스트 노현석 YTN P.D 박선영

아프리카대륙비전 홍보대사 위촉식이 3월 대조동 순복음 교회에서 있었습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아프리카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아프리카대륙비전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앞으로의 활약을 기대하며 홍보대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약서

제1조(목적)

본 협약서는 "사단법인 아프리카대륙비전"(이하"갑")과 "행복한치과"(이하"을")사이에 "갑"의 목회자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을"의 건강관련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갑"과 "을"이 상호간에 하고 있는 공익 사업에 대한 지원과 제공하여야 하는 서비스의 형태와 내용 등 주요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계약기간)

- ① 이 협약은 2011. 3. 12 부터 2011. 3. 12 까지 유효하다.
- ② 협약의 일방당사자가 협약기간의 만료일 30일 전까지 상대 당사자에게 협약의 변경 또는 해지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는 한 협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으로 연장된다.
- ③ 전항의 경우, 연장되는 기간은 1년으로 한다.

제3조("을"의 "의료서비스 지원")

- ① "을"은 "갑"의 회원 및 그 가족에게 주치의로서 비급여 의료서비스를 아래와 같이 제공한다.
 - 가. 무료구강검진
 - 나. 스케일링 할인혜택 (6만원 => 2만원)
 - 다. 임플란트 치료 할인혜택 (수입 190만원 => 160만원, 국산 120만원 => 88만원)
 - 라. 치아교정 치료 할인혜택 (메탈350 => 290만원, 세라믹390=>330만원, 픽클리어450 => 390만원)

06 행복한치과와의 MOU체결

서울명동에 위치하는 행복한 치과와의 MOU체결을 통하여 아프리카대륙비전(ACM) 후원자님들께 치과진료시 20~70%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치과진료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사무국에 문의바랍니다. (행복한 치과 ☎ (02)-777-1224 / 아프리카대륙비전 사무국 1688-5480)

07 미디어 보도를 통한 SCU 홍보



하나님의 은혜로 아프리카대륙비전의 SCU사역이 최근 CTS기독교 방송국, YTN뉴스, 조선일보, 국민일보 등에서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를 계기로 사단법인 아프리카대륙비전이 알려지고 많은 후원자(공동설립자)가 회원으로 등록되기를 희망합니다.

08 공동설립자를 위한 기도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 집니다. 공동설립자의 기도제목입니다. 아프리카를 마음에 품고 함께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합심하여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09 도서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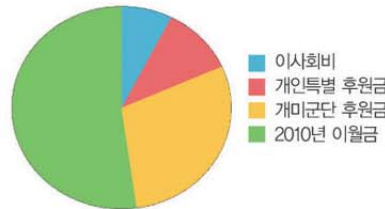
아프리카를 품고 늘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시는 안양동광교회 신필수 목사님의 "당굴교회의 비밀"이 집필되었습니다. 이 책을 통하여 단일하고 편안한 삶에 젖어있는 현대 크리스천들에게 새로운 도전을 주고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 보게 하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를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10 한 통화 전화로 병원이 세워집니다.

정기적으로는 후원하지 못하지만 전화 한 통화만으로도 에이즈로 죽어가는 아프리카인을 치료할 병원이 세워집니다. 아프리카를 사랑하고 후원하고자 감동이 있으면 전화 주세요. 한 통화 전화만으로도 5,000원의 후원이 가능합니다. ARS 전화 060-700-11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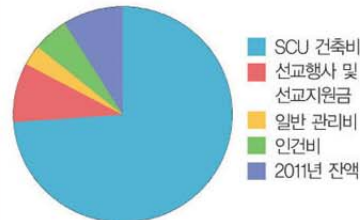
11 2011년 후원금 사용내역

2011년 후원금 현황



구분	금 액(천원)
이사회비	39,200
개인특별 후원금	56,052
개미군단 후원금	154,924
후원금 소계	250,176
2010년 이월금	274,410
합 계	524,586

2011년 사용내역 현황



구분	금 액(천원)
SCU 건축비	386,337
선교행사 및 선교지원금	48,534
일반 관리비	42,863
지출 소계	477,734
2011년 잔액	46,852
합 계	524,586

12 정기기도회 모임

매월 둘째주 월요일 오후 7시에는 SCU설립을 위한 특별기도회가 열립니다. 말씀이 있고 뜨거운 찬양과 기도가 있습니다. 응답의 체험이 있습니다. 귀한 음식도 대접받습니다. 우리 모두 열정을 갖고 참여합시다. 참석하지 못하는 후원자님들께 도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해 주세요.

[사단법인 아프리카대륙비전]

문화체육관광부허가단체 재정경제부 지정기부금단체
 [후원계좌] 외환은행 630-006908-332 (사)아프리카대륙비전
 [주소] 서울시 종로구 연지동 136-46 한국기독교회관 607A
 전화 1688-5480 팩스 (02)6008-0769
 ARS전화 060-700-1101
 이메일 scu2010@gmail.com
 홈페이지 www.africavision.or.kr





사단법인
아프리카대륙비전
Africa Continent Mission-Korea

서울시 중로구 연지동 한국기독교회관 607A (우)110-736

전화 | 1688-5480 팩스 | (02)6008-0769

이메일 | scu2010@gmail.com

홈페이지 | www.africavision.or.kr

ARS전화 060-700-1101